

북한을 위한 기도

202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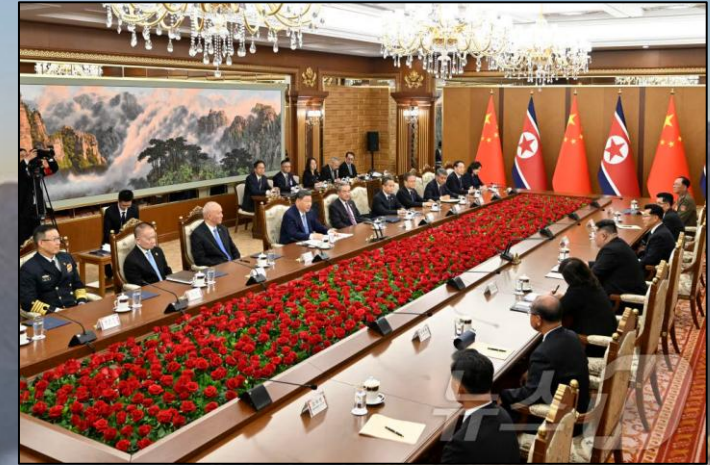


1. 북중 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8~9일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 강화, 발전 전략 연계 및 실질 협력 확대, 국경 통상 구 전면 재개통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북중 간 우호 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는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집행 분야 등의 교류 강화는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중국이 더 협조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을 높일 듯 보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조항이 신설되고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하고 명목상의 견제 사항마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측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북한의 4대 세습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북한의 4대 세습, 그리고 핵 무력을 다음 세대로까지 전수하려는 북한의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아직 10대 초반의 딸에게 후계 수업을 하는 상황 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살길은 권력의 세습이 아닌 회개와 변화일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북한이 권력 세습에 집착하기보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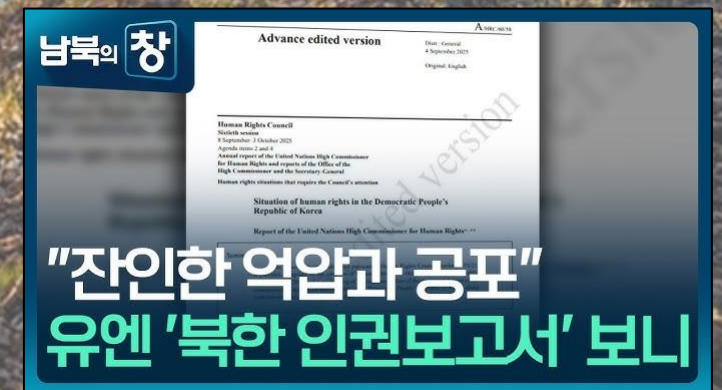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5.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작전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모두 경제난과 오랜 독재 통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반발로 국내 정세가 혼란한 중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사태를 통해 서민 경제를 챙기고 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북한이 그간 시행한 강력한 외래문화 통제와 함께 '사상 개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최근 당대회를 통해 시사하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유를 포함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이번 여름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억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박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여 억류 중에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7.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북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기심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 여성들을 모함하고 신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여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